

# 젠더 및 성적 다양성 테라피 Gender and Sexual Diversity Therapy (GSDT)

**Olivier Cormier-Otaño and Dominic Davies**

번역 (translation) : Eunhae Eve Cho

##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이 장은 젠더와 성적 다양성(gender and sexual diversities, GSD)<sup>1</sup>에 집중할 것이다. GSD는 기존에 사용하던 LGBT (I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 퀘스처닝)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Kink/BDSM (본디지, 디스프린, 지배, 복종, 사디즘/마조히즘)의 실천이나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의 향유를 포함하는 - 그러나 반드시 Kink/BDSM에만 제한되지는 않는 - (Langdrige and Barker 2007), 그리고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단순히 인터섹스나 트랜스젠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망라한다.

GSD는 에이섹슈얼리티 (Rothblum and Brehony 1993)와 비혼, 폴리아모리와 스윙어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 합의된 비-모노가미를 비롯한 관계의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Barker and Langdrige 2010).

최근의 이론들은 성적 지향의 자연스러운 유동성을 상세히 묘사한다 (Diamond 2008). 성적 선호는 주로 연속체로 간주되며 사회적 맥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동성에 대한 이끌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다양한 지점에 발생할 수 있고, 리비도나 성욕의 강도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 Diamond의 연구는 여성의 경우 상대를 성적 대상이 아닌 개개인으로 보고 이끌리는 경향이 있어 남성보다 더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게이 남성은 파트너의 타입 선택이 더 경직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Diamond 2008, 또한 Davies 2012를 참조하라).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의 젠더 혹은 섹슈얼리티를 각기 다르게 정체화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성인기의 후반에 젠더 이형성 (gender variance)<sup>2</sup>이 나타날 수 있다 (Lev 2004).

클라이언트<sup>3</sup>는 로맨틱한, 그리고/또는 섹슈얼한 관계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이슈는 내적이거나 대인관계적 요소의 문제인 경우가 잦다. 에이섹슈얼 집단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여부에 관계 없이)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병리화되고 차별의 대상이 된다. 에이섹슈얼리티를 표출할 때, 그들은 사회적 비난과 파트너를 가지고 섹스를 하라는 압력을 직면하게 된다 (Cormier-Otaño가 후에 설명). 스펙트

역주1) 이후에 상술되듯이, GSD는 섹슈얼리티, 젠더 정체성, 성적 선호와 실천의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LGBT 등의 용어가 가지는 한계를 성찰하는 동시에, 좀 더 다양한 양태의 성적 특성과 실천을 병리화하지 않고 논의하기 위한 고민이 담긴 용어이다. gender and sexual diversity (diversities)의 약어인 GSD는 젠더 및 성적 다양성으로 분류되는 일군의 특성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고, GSD로 분류될 수 있는 정체성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집단을 나타내는 용어일 수도 있다. 원문에서는 gender and sexual diversities, gender or sexual diversit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나 본 번역본에서는 각각을 따로 번역하거나 '성소수자' 등의 단어로 대체하지 않고 GSD로 통일하였다.

역주2) 젠더 퀴어, 안드로진, 크로스드레서(트랜스베스타이트), 혹은 젠더가 없는(no-gender) 드랙퀸/드랙킹 등 협소한 의미의 여성/남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거나 젠더(정체성)를 표현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지칭한다.

역주3) 카운슬링이나 테라피의 도움을 받는 내담자, 환자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client를 사용한다.

© Olivier Cormier-Otaño and Dominic Davies – 2012년 6월 7일. 이 문서는 GSD 정체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치료에 관한 자료를 원하는 심리치료 전공자 및 상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와 동일한 포맷으로 (카피라이트와 단체명을 명시한 상태로) 자유롭게 배포 가능합니다.

럼의 반대쪽 끝에는 동시에 둘 이상의 로맨틱한, 그리고 섹슈얼한 관계를 맺는 폴리아모리적 관계가 있다. 폴리아모리는 에이섹슈얼리티와 마찬가지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아우른다.

가능한 성적 선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선호와 관계 유형의 선택 조합은 다양하며 각각은 독자적인 내러티브를 이룬다. 이 내러티브 중 어떤 것은 다양한 정도의 곤경과 함께 나타난다. 물론 대부분의 GSD는 테라피를 찾지 않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명명하고 정체화하도록 내담자를 돕는 것은 젠더 이형성을 경험하는 (gender-variant), 젠더와 성 양면에서 사회의 기존 정의(定義)에 도전하는 내담자가 마주하는 복잡성에 중점을 둔다. 레즈비언 커플의 두 사람 중 하나가 남성이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동성애 관계에 있는 것인가? (Lev 2004)

### 젠더 및 성적 다양성 테라피 Gender and Sexual Diversity Therapy

젠더 및 성적 다양성 테라피 (GSDT) 는 동성애 긍정 테라피 (Gay Affermative Therapy) 와 별개로 젠더와 성적 다양성을 둘러싼 모든 형태와 양상과 이슈를 포괄하고 지지하기 위한 최신의, 그리고 신중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GSDT는 모든 이론적 모델 (정신역동, 인간주의, 행동주의) 이 해당 이론의 중심적인 조직 원칙 및 주의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메타이론이다 (trans-theoretical approach) (Davies and Neal 2000).

동성애 긍정 테라피 (GAT) 라는 명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정치적 층위에서는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젠더 이형성을 나타내는 이들 (gender-variant) 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이성애적 클럽에서도 나타나는 서브컬처 그룹들 (킹크, 페티시즘, 스윙어 등등) 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긍정" 이라는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실현이라는 의무를 암시한다.

### 과잉 각성 [Hypervigilance] - 핵심 개념

GSD 들은 오랫동안 '광인, 악인, 혹은 깊이 알면 위험'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온 역사가 있다. 이는 병리화나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과잉 각성을 야기하여, GSD 들은 적의나 안전의 신호를 찾아 자신의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된다. 내가 이해(오해) 받게 될까? 내가 수용되거나 이해받을 수 있을까? 자신을 드러내도 안전할 것인가? (Carroll 2010). 이 매우 민감한 상태는 상담 장소에서도 나타나게 될 불안과 고통의 원천이다. GSD 클라이언트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테라피스트의 젠더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의문시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GSD인 상담자를 요청하게 되거나, 그러한 상담자와 테라피를 진행할 때 더 이득을 얻는다. 자신의 [GSD] 커뮤니티 외부에 있는 상담자를 선호하거나, 거기에서 더 큰 이익을 얻는 내담자도 있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테라피스트 선택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결정이며, 소수자, 아니면 비 소수자인 테라피스트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가 상정하는 가정들은 탐색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바램은 존중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GSD 정체성을 가진 테라피스트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의 역사를 기꺼이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전면으로 불러온다.

### 좋은 테라피

대부분의 카운슬러나 싸이코테라피스트들은 GSD 들을 대상으로 한 테라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발달모델과 많은 상담이론은 이성애를 사회적 규범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특권화한다. 최근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17%의 카운슬러

© Olivier Cormier-Otaño and Dominic Davies – 2012년 6월 7일. 이 문서는 GSD 정체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치료에 관한 자료를 원하는 심리치료 전공자 및 상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와 동일한 포맷으로 (카피라이트와 단체명을 명시한 상태로) 자유롭게 배포 가능합니다.

들이 내담자들이 동성을 향한 이끌림을 억누르도록 도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Bartlett et al 2008). 이른바 "성적 지향 전환치료" 또는 회복치료<sup>4</sup>를 하는 테라피스트는 동성에 대한 욕구는 병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내부적 억압과 공모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들에게 해를 끼쳐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Daniel 2009).

좋은 GSDT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대한 섬세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그들의 과잉각성을 민감하게 다루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경험의 사회적 맥락에 관해 테라피스트를 교육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아니다. 물론 사회적 맥락에 대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관점은 전적으로 테라피와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것이다. 이는 GSD의 삶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정체성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는지에 대한 테라피스트의 이해를 요구한다. GSD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책과 온라인 정보는 풍부하다. 영국이 해당 분야에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많은 자료는 미국의 것이다.

섹스, 젠더 역할, 관계 등과 관련하여 '건강' 이나 '정상' 이 무엇인가에 관한 자신의 편견, 믿음과 견제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도 어떤 심리학자에게나 최우선 과제다. 우리 모두는 이성애 규범의 믿음이 내재되고 영속되어온 주류 문화 안에서 사회화되었으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성애 중심주의와 호모포비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영국의 테라피 훈련 과정이 젠더 및 성적 다양성 이슈와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이슈들은 다양성에 관련된 일회적 강의에 포함되곤 하며 3시간을 넘기는 일도 별로 없다. GSD 이슈가 LGBT 교육생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성소수자 학생은 다른 동료 교육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이 흔한 교육 경험이다. 이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LGBT 학생들 자신의 학습요구가 무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다른 곳에서 자격증 과정 외의 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Davies 2007).

좋은 테라피를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한 세 번째 영역은 젠더와 성적 다양성의 심리학, 그리고 자아의 성장에 낙인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테라피스트들은 GSD들의 관계와 다수 이성애, 혹은 주류의 관계 사이에 엄연히 실재하는 차이를 부인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레즈비언 관계는 남성 게이 간의 관계와 상당히 다르며, 게이 관계도 이성애 커플의 관계와 다르다. 각 GSD 정체성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서로 공유하는 특성도 존재한다. 필자의 견해는 정신 내부의, 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GSD 경험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과 클리닉 진료 경험은 지식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GSD 비영리 단체에서 카운슬러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배움을 얻는 독특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런 단체들은 카운슬러가 GSD로 정체화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른 테라피스트들과 만나고 정보, 책, 수퍼비전과 지지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테라피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단지 게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GSD로 정체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에게 훈련이 필수적이다.

역주<sup>4</sup>) 한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꾸려는 심리치료. 자세한 내용은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KSCRC의 "성적 지향 전환치료"항목 참조.

"성적 지향 전환치료"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012년 7월 4일

테라피스트 일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그렇듯이, 수퍼비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진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비록 장기간의 감독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의 지식이나 인지에 도전하기는 어렵지만, GDS 고객과 일하고 있는 테라피스트들은 그들의 감독자도 해당 방면에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자신의 편견을 표출해서 GDS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테라피스트는 역시 본인의 편견을 해소한 감독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에로틱한 전이/역전이와 같은 문제나 상담실에서의 분노의 감정은 탐색되지 않은 채 남겨지거나 잘못된 조언을 받을 것이다 (Pope, Sonne and Holroyd 2000). 불편한 사례로는, 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테라피스트가 성적 실천이 주로 지배 (domination) 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 숙고하고 싶어할 때 BDSM 을 아동기의 학대나 병리에서 비롯되는 자기학대 경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감독자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 사회적 맥락과 특수한 이슈를 이해하기

GSD 클라이언트들도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문제 때문에 테라피를 찾을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은 그들의 내러티브에 추가적인 차원과 다른 층위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성애 규범적, 가부장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사회의 힘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지향, 젠더와 인종에 대한 외부적 억압과 부정적 메시지는 내면화된 억압을 야기할 수 있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맞춰 행동하길 강요받은 (예를 들어, 파란 옷을 입거나 짧은 머리를 하는 것) 소년은 남성이 분홍색 옷을 입거나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재고되지 않는다면 이 소년이 성인 남성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여성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수용하게 할 수도 있다. 비슷한 경우로, 섹스와 그 표현은 이성애적인 재생산 행위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상호합의적 성적 실험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내면화된 억압은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고립감, 거절에의 공포와 다른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GSD 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심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 우울증, 자해와 약물 오남용을 경험한다 (King et al 2008).

도시에서 GSD 들의 사교활동 대부분은 클럽과 바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합성 마약들이 게이 클럽 씬에 처음 소개되었고, 따라서 일반 클럽 씬보다 먼저 이것이 밤 외출의 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GSD 그룹의 약물과 알코올 사용은 억압과 압력에 대한 반응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억압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외부의 압력에서 탈출하려 하거나, 동료와 함께 커뮤니티의 감각을 경험해 보고 싶은 충동이 존재한다.

고립, 은닉과 수치심은 GSD 클라이언트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정확한 정보의 부재를 야기하기 쉽다. 이는 인간관계의 스킬, 성교육과 다른 이슈들에 관한 것을 돕기 위하여 카운슬러들이 심리교육적 (psycho-educational) 방법과 숙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테라피스트의 성적 지향이 클라이언트와 일치하고 이것이 밝혀져 있을 때, 테라피스트는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클라이언트에게 롤 모델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수퍼비전에서 논의되어야 할 측면 중 하나이다.

## 정체성과 소속감

강력하게 내면화된 자기억압적 사고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 또한 의문시할 수 있다. 자신의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것, 또는 동류의 정신을 찾는 것만이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



른 측면들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GSD를 인지하는 테라피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표현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종종 클라이언트는 후에 그 중요성이 더해지게 되는 커뮤니티에 소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위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GSD 커뮤니티 내부의 규범을 받아들이며 발생하는 압박이 매우 강하고 억압적일 때 (패션, 라이프스타일, 동료들의 압력)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또 다시 조건부로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게 되는 곳에서 거짓 자아를 발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많은 GSD 들은 결혼 (시민 결합) 과 자녀 입양을 원하며, 따라서 좀 더 이성애 주류에 알맞게 조율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지배적 다수의 승인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소수자' 정체성을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GSD 클라이언트들은 많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며 (영적, 문화적, 전문적, 종교적, 정치적, 가족, 젠더 등의 공동체) 대립하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나 신앙공동체는 동성 간의 관계를 관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GSD 커뮤니티에서도 모든 개인적 특성, 인종, 성적 실천이나 젠더 정체성이 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 나이주의와 인종주의는 넓은 의미의 GSD 문화 안에서 작동하는 매우 실제적인 차별의 일부일 뿐이다.

## 시대의 변화, 그때 그 시절

역사적으로, 사회 안에 받아들여질 공간을 협상하기 위해서 GSD 들은 이성애자로 '패스' 하거나 커밍아웃을 해야 했다. (내적, 외적 억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짓 자아를 연기하거나,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성적 선호 또는 젠더 정체성을 폭로하고 스스로를 위협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애자들은 겪을 필요가 없는 자기-인정과 노출의 과정이다.

커밍아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복잡하고 되풀이하는 것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절, 피해, 학대에 대한 두려움 (트랜스포비아와 호모포비아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 매번 새로운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서 커밍아웃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GSD 들에게, 특히 내면화된/외적인 억압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 매우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한다 (Carroll 2010).

또한 전적인 '커밍아웃' 은 다른 사회나 인종 집단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서구적 개념이기도 하다. 커밍아웃은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불러올 수 있다 - 커밍아웃보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통합하는 다른 협상방식과 좀 더 관련이 있는 흑인이나 타 소수 인종 그룹일 경우 특히 그러하다 (das Nair and Thomas 2012, Beckett 2010). das Nair 는 때때로 게이 정체성을 은근한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규범과 함께 조절해 나가야 하는, 클로징 출입을 반복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Beckett 은 젊은 무슬림 남성과의 그녀의 테라피에 관해,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 알도록 선택적으로 초대받는, 커밍아웃이라기보다 '초대하기 (inviting in)' 인 일련의 과정을 유창하게 묘사한다.

다행히도, 커밍아웃의 경험 (혹은 트랜스젠더들의 경우는 '이머징' 이라고 알려져 있음, Lev 2004) 과 의미 있는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GSD 의 수용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세대는 게이나 레즈비언보다 "퀴어" 아이덴티티를 편안해하거나 "타자" 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고정된 섹슈얼리티나 젠더 정체성을 선언한다는 개념은 섹슈얼리티를 한 지점에 고정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믿는 많은 젊은이들에 의

해 무너지고 있다. 이 이른바 '무지개 세대 (Rainbow Generation)' 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더 유동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에, 기성세대 GSD 인구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전기 충격 치료, 동성애적 행위의 범죄화, 공공연한 비난과 수치 등) 으로부터 비롯된 내면화된 억압에 맞서 고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적극적인 듣기와 공감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맥락이 그들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깨닫도록 해주는 핵심 스킬이다. GSD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종종 공통적인 원인이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성찰적이고, 인지된, 존중적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클리니컬한 접근이 좋은 진료의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정신적 건강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Davies 1996).

숙련되고 윤리적인 GSD 테라피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는 정도나 단계에 상관 없이 같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섹슈얼리티나 젠더 정체성에 관련된 테라피가 클라이언트가 차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경험 전체를 대체할 역할을 떠맡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GSD테라피스트는 동성을 향한 이끌림을 '치료' 하거나 감소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혹은 '전환치료' 때문에 상처입고 학대당한 클라이언트와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성적 실천

쾌락, 재생산과 플레이는 섹스의 세 가지 목적이며 성적 실천에서는 상상력도 풍요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 GSD 클라이언트와 일해야 한다면, 다양한 성적 실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테라피스트의 책임이다.

클라이언트와 테라피스트 간의 언어와 의사소통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나 용례를 보여야 한다; 테라피스트의 단어 사용은 클라이언트를 모방해야 하며 친숙하지 않은 용어는 테라피스트가 적절히 탐구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적이고 구어적인, 혹은 속어에 대한 대답으로 테라피스트가 의학적이거나 해부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테라피스트로부터의 불편함이나 거절의 메시지로 독해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하고 현재적인 성 건강, HIV 인지 및 치료와 안전한 섹스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 또한 테라피스트에게 도움이 된다.

### 결론

GSDT 는 GSD 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뿐 아니라 개개인의 특수한 염려도 인지한다. 이 테라피는 과잉 각성과 이성애 규범에 치우치고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에서의 삶으로 인한 결과를 다룬다. GSDT는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경험과 외적 억압에 관해, 그것이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그리고 GSD 인구와 커뮤니티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범위의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테라피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규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가치와 도덕적 코드들을 개인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좋은 GSDT 의 실천은 테라피스트의 섹스와 젠더에 대한 편견에 대한 세심한 처리와, 서구의 이성애 규범적이고 가부장적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조건 하의 GSD 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테라피스트들은 섹슈얼리티와 젠더, 즉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기이자 가장 큰 두려움 두 가지에 맞서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 받고, 자극 받고, 배우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Barker, M. and Langdrige, D. (eds) (2010) *Understanding Non-Monogamies*. Hove: Routledge.
- Bartlett, A., Smith, G. and King, M. (2009) The respons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clients seeking help to change or redirect sexual orientation. *BMC Psychiatry* 9 (11) available online: <http://www.biomedcentral.com/1471-244X/9/11>
- Beckett, S. (2010) Azima ila Hayati: An Invitation into My Life: Narrative Conversations about Sexual Identity. In Lyndsey Moon (ed) *Counselling Ideologies: Queer Challenges to Heteronormativity*. Farnham: Ashgate.
- Carroll, L. (2010) *Counselling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Columbus: Merrill.
- Daniel, J. (2009) The Gay Cure? *Therapy Today*. October: 10-14
- das Nair, R. & Thomas, S. (2012). Race and Ethnicity. In R. das Nair & C. Butler (eds.) *Intersectionality, Sexuality, & Psychological Therapies: exploring lesbian, gay, and bisexual diversity*. London: Wiley Blackwell/BPS-Blackwell imprint. Pp59-88.
- Davies, D (1996) Towards a Model of Gay Affirmative Therapy in D. Davies and C Neal (eds) *Pink Therapy: a Guide for Counsellors and Therapists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Davies, D. and Neal, C. (eds) (1996) *Pink Therapy: a Guide for Counsellors and Therapists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Davies, D. and Neal, C. (eds) (2000) *Therapeutic Perspectives on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Davies, D. (2007) Not in front of the Students. *Therapy Today*. February 2007
- Davies, D (2012) Sexual Orientation in C. Feltham & I. Horton (eds) *The Sage Handbook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3r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Diamond, L. (2008) *Sexual Fluidity: Understanding Women's Love and Desir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gdrige, D. and Barker, M. (eds) (2007) *Safe, Sane and Consensual*. Basingstoke: Palgrave.
- King, M., Semlyen, J., Tai, S.S., Killaspy, H., Osborn, D., Popely, D. and Nazareth, I.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 (70) <http://www.biomedcentral.com/1471-244X/8/70>
- Lev, A. I. (2004) *Transgender Emergence: Therapeutic Guidelines for working with Gender-Variant People and Their Families*. New York: Haworth.
- Pope, K.S., Sonne, J. L. and Holroyd, J (2000) *Sexual Feeling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thblum, E.D. and Brehony K. A. (1993) *Boston Marriages: Romantic but Asexual Relationships among Contemporary Lesbian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추천 자료

- Finnegan, D.G. and McNally, E. B. (2002) *Counseli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ubstance Abusers: Dual Identities*. New York: Haworth
- Moon, L. (2008) *Feeling Queer or Queer Feelings: Radical Approaches to Counselling Sex, Sexualities and Genders*. Hove: Routledge
- Pattatucci Aragón, A. (2006) *Challenging Lesbian Norms: Intersex, Transgender, Intersectional and Queer Perspectives*. New York: Haworth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New Jersey: Wiley.

## 저자 소개

**Olivier Cormier-Otaño** MBACP (Accred.) 는 통합 및 관계 카운슬러이자 심리성적치료 테라피스트이다. 그는 오랫동안 런던의 여러 LGBT 자선단체에서 상담원으로 봉사한 후에 주로 GSD고객과 일하고 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상담의 전문가인 그는 핑크테라피의 고급 공인 성적 다양성 테라피스트(Advanced Accredited Sexual Diversity Therapist) 이기도 하다. 그는 컨퍼런스 와 대학에 에 이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olivier.counselling@hotmail.com](mailto:olivier.counselling@hotmail.com)

[www.oliviercounselling.co.uk](http://www.oliviercounselling.co.uk)

**Dominic Davies** 는 영국 상담 및 심리 치료 협회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BACP) 회원이며 30 년 이상 GSD들과 일해 온 BACP 선임 등록의 개업 상담사이다. 그는 GSD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 특화된 영국 최대의 독립 테라피 기관 핑크테라피의 이사이다. 그는 핑크테라피 트릴로지 텍스트북 (Open University Press)의 공동 편집자 (Charles Neal과 함께) 이며 영국과 세계에서 광범위한 성적 다양성 테라피를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그는 핑크테라피의 고급 공인 성적 다양성 테라피스트 (Advanced Accredited Sexual Diversity Therapist) 이다.

[dominic.davies@pinktherapy.com](mailto:dominic.davies@pinktherapy.com)

## 번역

이 문서는 조은혜가 번역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심리치료 및 퀴어에 관한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자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서는 영국의 현실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니,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가며 읽어 주세요. 본 문서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에서 (twitter: @a\_bject, tumblr: eve-ri.tumblr.com)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에 대한 문의나 교정, 제안도 환영합니다. 이 문서는 2012년 7월에 번역되었습니다. 트위터나 텀블러에서 저를 찾을 수 없다면 ([eve.hae12@gmail.com](mailto:eve.hae12@gmail.com)) 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소개

핑크테라피 **Pink Therapy**는 폭넓은 젠더 및 성적 다양성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영국 최대의 독립 테라피 및 트레이닝 단체입니다. 1999년에 **Dominic Davies** 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영국의 심리 치료 단체들에 의해 이 분야의 선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핑크테라피는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의 테라피스트들을 불러들이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대학에서 인증받는 전문 GSD 학위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우리는 세계 각지의 테라피스트들이 찾는 6일간의 여름 집중 이수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핑크테라피는 트레이닝, 클리닉 자문, 슈퍼비전과 해외 테라피스트에 대한 대면 또는 스카이프 컨설턴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전 세계의 테라피스트들이 포함된 온라인 핑크테라피스트 사전을 재배포하였고, 핑크테라피 웹사이트는 유용한 자기 치유 정보와 추천 독서목록, 비디오와 팟캐스트를 제공합니다. [www.pinktherapy.com](http://www.pinktherapy.com)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페이스북 (Pink Therapy), 트위터 (PinkTherapyUK), 텀블러 ([PinkTherapyUK.tumblr.com](http://PinkTherapyUK.tumblr.com)), 링크드인 (Pink Therapy International) 에서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